

“제5회 환경정책 설명회 및 신기술 발표·전시회” 성료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주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

환 경정책 담당자와 실무자, 지자체 환경공무원, 환경기업체 관계자, 환경기술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로 주최로 마련돼 대성황을 이뤘다.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회장 박천상)/월간 ‘환경기술인’은 지난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제5회 환경정책 설명회 및 신기술 발표·전시회’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WASTECH2007(서울국제폐기물처리 및 자원순환 전시회)’ 개최 기간중 그랜드볼룸 104호와 컨퍼런스홀 330호, 장보고홀 336호에서 이틀 동안 개최한 것으로, 환경부, 서울특별시,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사)한국폐기물학회 등이 후원했다.

이날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과, 대기총량제도와, 대기관리과, 생활하수과, 유역총량제도와, 산업폐기물과, 수생태보전과 등 해당실국에서 정책입안자들이 직접 나와 환경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으며, 특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수질 TMS 구축계획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악취관리, 슬러지 재활용, 비점오염원 관리 및 방지기술 등의 정책 현안에 대한 설명과 최신공법 및 신기술 발표를 가졌다.

주요 발표내용으로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유명수 서기관이 ‘자원순환형 폐기물 정책방향’, 해양경찰청 배출물관리과 현충국 주사가 ‘폐기물 해양투기량 감축방안’, 해성엔지니어링(주) 반중석 과장이 ‘산화습식 악취 저감 기술’, 창원대 환경공학과 배성근 교수가 ‘폐기물열

처리와 에너지화 기술동향’, 환경부 유역총량제도와 이학구 사무관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와 향후 정책방향’, 환경관리공단 측정관리처 이준홍 팀장이 ‘수질 TMS 구축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서울산업대 환경공학과 배재근 교수가 ‘바이오메스의 자원화 기술의 동향’, 환경자원공사 폐기물시설설치실 박석현 실장이 ‘재활용기술의 현재와 미래’,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강성구 사무관이 ‘산업폐기물 관리 정책방향’,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고대현 사무관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 현황과 전망’ 등을 강의했다.

또한 신기술 발표는 (주)세진환경 유문하 대표가 ‘악취 및 VOCs 제거 기술’, 서원티엠에스(주) 김득중 대표가 ‘FTIR방식 멀티가스측정기 원리와 용도’, 세이브기술(주) 백명석 팀장이 ‘SAP 시스템을 이용한 악취 및 VOCs 처리기술’, (주)엔텍스 정인 대표가 ‘하수슬러지 저감 및 소화조 정상화 기술’, 동일화학 이선균 대표가 ‘총질소 제거 및 녹조류의 효율적 제거 메카니즘’, (주)포스벨 연구소 이병선 소장이 ‘자원순환형 MBT기술 및 사업화 동향’, 동문과학상사 이경진 팀장이 ‘방류수 원격감시체계(TMS) 시범운영’, (주)동일그린시스 허목 본부장이 ‘수질 TMS 제안’ 등을 발표해 신기술 개발 업체와 수요자와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행사장 밖에는 디에이치엠(주)(탁봉열 대표이사) 등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제품 및 회사 소개를 위해 대서양홀 3층에 마련된 ‘WASTECH2007’ 전시회에 참여하여 행사참석자들이 우수 환경기술 정보를 습득하는 계기가 됐다. 